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 우리 인간은 만 가지 법을 하나의 마음으로써 다 작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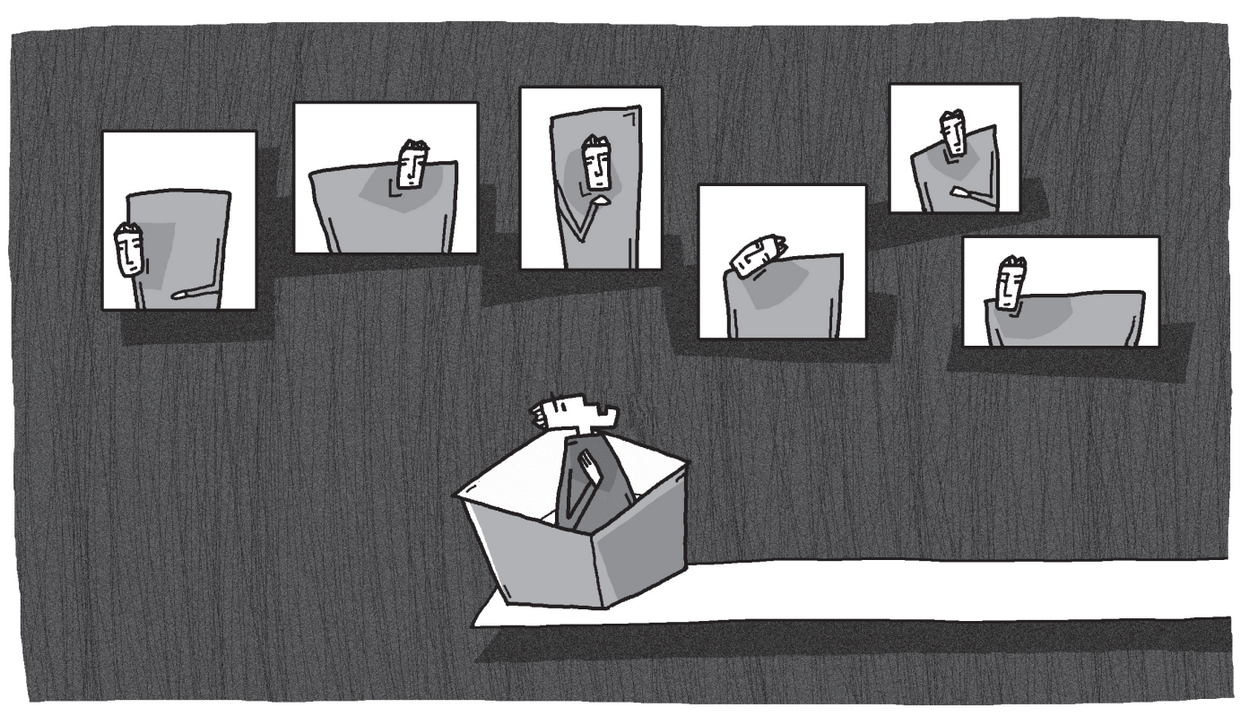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일체 만물이 다 끼리끼리 모이듯, 우린 이렇게 마음공부 하는 분끼리 한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억겁을 거쳐서 진화되면서 인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육체 속에 모든 생명과 의식, 모습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미생물에서부터 수없는 과정을 거쳐 왔다는 것을 인정 못 하겠거든 바로 우리 육신 속에 있는 그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잉태됐을 때에 열 달 동안 그 모습들을 가지고 형태를 바꾸어 가면서 조성된다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잉태될 때에 처음부터 사람 모습으로 잉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개구리 알처럼 흐늘흐늘하게 시작이 돼서, 올챙이처럼 돼 가지고 수없이 그 모습을 바꿔 가면서, 열 달을 채워서 인간 모습으로 탄생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모자라는 거, 잘못되는 거, 또는 잘못된 모습들, 하(下)의 생명들의 하나하나의 모습들을 볼 때에 둘로 보지 마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도 수없는 나날을 지나오면서 그런 모습을 거쳐서 진화됐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는 사람을 보더라도 옛날의 내 모습, 내 모자람으로 보고, 어떠한 모습을 봤을 때도 바로 과거의 내 모습으로 봐라 이 소립니다.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되풀이하느냐 하면, 그렇게 거쳐 온 그 중생들이 나 아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부 나입니다. 수십억의 의식들이 전부 내 의식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을 지은 그 의식들이 전부 내 의식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으로부터 좇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하나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작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그 업식을 지닌 인연에 따라서 모두 작용이 되고 움죽거리게 됩니다. 그러니만큼 자기가 자발적으로 생각을 해서 움죽거리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나'가 있습니다. 사량적인 육안으로 보고 듣고 행하고 하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행하고 마음으로 말하는 '진짜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속에 들어 있는 만 중생들이 모두 제가끔들 한 가지씩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는 뿔의 기능, 말은 발차기 기능을 소유하듯, 밖에 있는 일체 만물들, 인간 이하의 모든 동물들도 역시 한 가지씩은 기능을 다 가졌다고 봅니다. 촉각으로 움죽거리는 것도 있고, 또는 감각으로 움죽거리는 것도 있고, 또는 청각으로 움죽거리는 것도 있고, 후각으로 움죽거리는 것도 있고 그렇게 천차만별로 움죽거리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의식들도 모두 한 가지 기능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안팎에서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움죽거리고 있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것들이 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닥칠 때마다 우리가 타파할 수 있고, 또 만법으로써 움죽거릴 수 있는 그 심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가지씩 기능을 가지고 사는 그 마음들을 우리는 다 포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만 가지 법을 하나의 마음으로써 다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거든지 다 내 마음으로 그쪽의 마음과 둘이 아니게끔 하면 그쪽에서 그대로 응하고 돌아갑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 이하의 모든 것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내 몸속에 있는 의식들도 다 내 마음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움죽거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이죠. 도둑질을 하러 가자 하면 도둑질을 하러 가게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전력 얘기를 항상 하는데, 전력은 '나쁜 짓을 해라, 좋은 짓을 해라' 하고 전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전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는 데 따라서 나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합니다. 그와 같이 인간의 모든 의식도 내 마음에 따라서 응해 줍니다.

그래서 이 몸 안에 들어 있는 것을 악업으로도 쓸 수 있지만 선업으로도 쓰고, 악업과 선업이 한데 합쳐서, 한마음이 돼서 바로 응신으로서 대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응신! 즉 말하자면 그렇게 응신으로 화해야 응신으로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달아서 자유스럽게 살자는 뜻이지, 무슨 말만 배우러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몸으로나 가정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는 세계적으로나, 나아가서는 우주적으로나 모든 걸 대응하고 작용하고 중용을 할 줄 알고, 어떤 거든지 걸림 없이 자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대권을 갖기 위해서 우린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는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속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소리도 가끔 합니다, 제일 빠른 게 그거니까. 만약에, 어저께 남을 속이고 따귀를 때렸다면 오늘 반드시 그 따귀가 결국은 돌아옵니다. 그와 같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만 과거가 아니라 바로 한 시간 전도 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조사들이 깨친 것은 바로 과거 생, 현재 생, 미래 생을 다 한꺼번에…, 그것이 과거 생만 있어도 아니 되고, 현재 생만 있어도 아니 되고, 미래 생만 있어도 아니 되는 거죠.

즉 말하자면 내 영원한 생명이 없어도 아니 되고, 마음 내는 게 없어도 목석일 테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육신이 없어도 보이지 않으니까 무효입니다. 그와 같이 과거 생과 현재 생, 미래 생 바로 삼세가 한데 합쳐서 돌아가면서, 삼생의 의지를 가지고서 지금 살림살이를 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 분 한 분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소라고 한다면, 소를 안 탄 분이 하나도 없죠. 소를 안 탄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전달을 하고, 또는 말로 전달을 하고, 행으로 전달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피리란 말이에요, 피리! 우리가 한생각을 깨쳤다 하면, '여여하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소를 타고 여여하게 피리를 불면서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을 냈다 하면 법신입니다. 몸이 움죽거렸다 하면 화신이고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그대로 중생이고 그대로 부처고, 그 한생각 돌리면 그대로 법신이고, 그대로 화신이고 보현신입니다. 마음의 도리, 이 마음의 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엊그저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분들은 잘들 들으시라고요. 또, 노인네는 죽어서 요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올 테니까 들어야 하고, 아버지들은 아버지로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